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3

화보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3

화보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3

확보



CONTENTS

현대중공업그룹 50년 연혁화보 004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006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028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050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076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098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122 2016~2022

일러두기

구성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는〉 제1권 통사, 제2권 성장스토리, 제3권 화보 등 1책 3권으로 제작했다. 제1권 통사는 창립에서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역사적 전환점이 됐던 6개 시기로 구분해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다. 1992년 20년사 발간 이후 30년 만에 편찬했으므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1권 통사에는 주요 자료와 통계 등 부록도 수록했다. 제2권 성장스토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역사적 사건 50개를 선정해 창업과 성장, 제품과 기술, 지속가능 경영으로 테마를 나눠 정리했다. 해당 사건별 채색 일러스트와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발췌, 수록해 생동감 있는 그림과 스토리로 구현했다. 제3권 화보는 현대중공업그룹 50년의 주요 사건을 사진으로 구성한 연혁화보와 현대중공업그룹의 오늘을 촬영해 현황화보로 구성했다.

표기

사명 변경에 따른 회사의 명칭은 각 시기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랐으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 표기를 준용했다.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을 혼용했다.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 억, 조 등 보조 단위를 사용했다. 본문 내에서 숫자 표기 시 천 단위 콤마(.)는 생략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업 현황 166

PART. 1

조선해양 SHIPBUILDING & OFFSHORE 168

현대중공업 170

현대미포조선 238

현대삼호중공업 248

PART. 2

에너지 ENERGY 260

현대오일뱅크 266

현대에너지솔루션 278

PART. 3

산업 솔루션 INDUSTRIAL SOLUTION 282

현대건설기계 288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00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306

현대로보틱스 316

현대글로벌서비스 322

PART. 4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328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330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338

현대일렉트릭 신뢰성센터 342

현대건설기계 기술혁신센터 346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350

PART. 5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352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354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358

학교법인 현대학원 362

아산나눔재단 364

아산사회복지재단 368

현대중공업스포츠클럽 372

HYUNDAI HEAVY INDUSTRIES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연혁화보 1972~2022

GROUP

PICTORIAL HISTORY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 ~ 1977

→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

조선일국을 향한

첫발

1972 - 1977

미포만의 과거와 현재

1972년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한 현대중공업은 창조적 예지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을 내세워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조선대국으로 견인하고 있다.



1954 울산 동구 항공사진



현대중공업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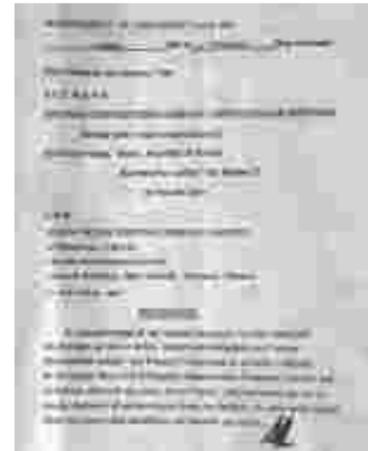
1971.09

조선소 건설 차관 도입

1970년대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하며 경제 성장의 고삐를 당겼다. 정주영 창업자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와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차관 도입에 성공하며 한국 조선업을 잉태시켰다.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현대 중공업 신화'의 막이 올랐다.



1971. 09 영국 버클레이즈은행과 조선소 건설 차관 도입 서명을 마치고 환담 중인 정주영 창업자



1971. 12 리바노스 회장과 체결한 1호선 계약서류



1971. 09 영국 애플도어와 조선소 건립 관련 협의



1971. 09 영국 애플도어와 조선소 건립 관련 협의

1972.03

울산조선소 기공

1972년 3월 23일 울산조선소 기공식이 거행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에 어마어마한 태극기 하나가 펄럭이는 가운데 정주영 창업자와 당시 박정희 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각국 대사들까지 참석해 우리나라 중공업의 포문을 여는 순간을 함께 했다.



1972 울산조선소 건설 현장을 시찰 중인 정주영 창업자



1972. 03. 23 울산조선소 기공식



1972. 10 가와사키중공업 일행과 조선소 부지를 살피는 정주영 창업자



1972. 03. 23 울산조선소 기공식

조선인국을 향한

첫발

1972 - 1977

울산조선소는 도크를 파내는 것도, 배를 건조하는 것도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1974년 6월, 기공 2년 3개월 만에 최대 선박 건조능력 70만 톤, 부지 198만 3471㎡, 70만 톤급 드라이도크 2기를 갖춘 국제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한 것이었다.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리바노스에서 주문받은 VLCC 2척을 예정대로 건조해내며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드높였다.



1972. 03 울산조선소 건설 현장



1972. 03 울산조선소 부지 조성 공사



1972. 10. 31 본관 건설 공사



1973. 07. 20 골리앗크레인 페인팅

1973.12

현대조선중공업 설립

1973년 3월 시업식을 갖고, 리바노스로부터 수주한 VLCC 1호선 건조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8일 조선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등기,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로 공식 발족하며 현대중공업 출범을 알렸다.



1973. 03. 20 현대중공업 시업식



1972. 07. 27 기능인력 훈련소 전경



1973. 03. 20 시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창업자



1974 현대중공업 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첫발

1972 - 1977

1·2호선 건조 작업

현대중공업은 도크를 파내는 동안 1호선 블록을 조립하는 등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했다. 유례가 없는 도전적인 시도였다. 첫 작품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배로 만든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본격적으로 건조 작업에 착수해 1호선의 도크 안 작업을 예정대로 1974년 2월 초 마무리했다. 건조에 착수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1973. 12. 04 1·2호선 건조 작업 전경



1973. 08. 28 골리앗크레인 시운전



1974. 02. 15 1호선 진수 기념 풍물놀이

1974.06

1·2호선 명명

1974년 6월 28일 오전 11시 1·2호선의 명명식이 거행됐다. 현장에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국내외 외교사절, 선주 리바노스와 정주영 창업자를 비롯한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울산시민 등 5만 명이 참석했다. 1호선은 '애틀랜틱 배런 (Atlantic Baron: 대서양의 남작)', 2호선은 '애틀랜틱 배러니스 (Atlantic Baroness: 대서양의 남작부인)'로 명명하며, 현대중공업 위대한 도전의 첫 신화를 완성했다.



1974. 06. 28 1·2호선 명명식



1974. 06. 28 명명식에 참석한 리바노스 선주 내외와 정주영 창업자



1974. 06. 28 1·2호선 명명식

1975.04

현대미포조선 설립

1975년 4월 현대미포조선이 정식 출범했다. 선박 수리 전문회사로의 역사적인 첫 걸음이었다. 정주영 창업자는 선박 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리사업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충분히 키울 만하다고 판단, 현대미포조선 설립을 통해 종합 조선사업의 의지를 현실화했다. 설립 당시에는 자체 수리시설이 없어 당시 현대중공업 제2도크를 빌려 사용했다.



1976 전하동 수리공장 전경

1975.05 현대미포조선 수리 야드 전경



1976.07

엔진사업부 발족

현대중공업은 대형엔진을 자체 생산, 조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75년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1976년 7월 엔진사업부를 발족했으며, 1977년에는 엔진공장, 주조공장, 단조공장 건설도 착수했다.



1977. 01 엔진사업부 부지 전경



1977. 11. 15 엔진공장 건설 현장

1976.07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산업항 건설공사 수행

현대중공업은 '20세기 최고의 역사'라고 불리던 주베일산업항 건설공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건설 사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최대 난공사인 유조선 접안시설(OSTT)의 자켓을 울산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19차례에 걸쳐 1만 2800km의 바다를 건너 공사현장까지 수송, 설치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자랑했다.



1976. 07 주베일산업항 유조선 접안시설(OSTT)

1977.02

중전기사업본부 발족

1977년 2월 전기부를 확대해 중전기사업본부를 발족했다. 산업화와 함께 전기기기의 대형화·고급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전기의 자체 공급과 수출산업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전기사업본부는 1977년 5월 독일의 지멘스와 중전기 제품 전반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 배전반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중전기사업본부 전경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 ~ 1992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

1978.08

엔진공장 완공

'엔진의 국산화 없이 조선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정주영 창업자의 혜안에 따라 1978년 8월 엔진공장을 완공했다. 연간 생산대수 50대 그리고 생산공장으로는 주조, 단조, 기계가공 및 조립 시운전 공장을 갖춘 세계 최대의 단일 종합공장이었다.



1978. 09. 10 엔진사업부 전경



1978. 11. 23 엔진공장 준공식



1979. 08 현대엔진 1호기 탑재 모습

1978.12

현대미포조선 15만 톤급 수리선 전용 도크 준공

현대미포조선은 1977년 수리선 전용 1도크(현 현대중공업 4도크)와 2도크(현 현대중공업 5도크)에 이어 1978년 15만 톤급 수리선 전용 3도크(현 현대중공업 6도크)를 준공했다. 이로써 창립 3년 만에 수리 전용 도크 3기, 80만 DWT 도크 시설 능력을 확보하며, 국제적 규모의 수리조선 전문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1978 수리선 전용 도크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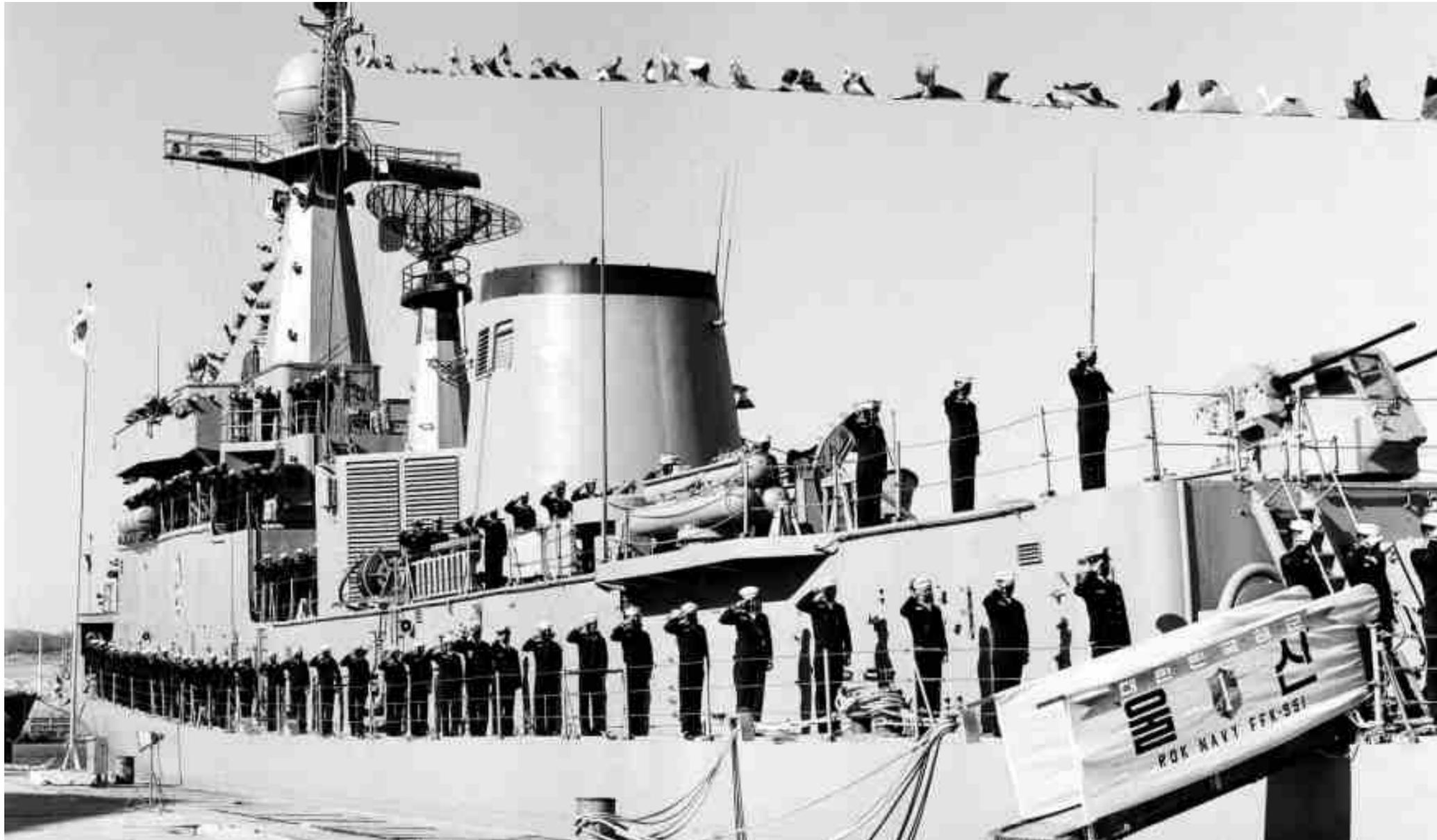


1980년대 초 현대미포조선 야드 전경

1980.12

국내 최초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 명명

1980년 12월 국내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 인수 및 명명식이 거행됐다. 전 세계적으로 구축함급 이상을 자체 설계해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10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2000톤급 울산함 건조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함정 생산국 대열에 들어섰다.



1980. 12. 03 울산함 인수 및 명명식



1980. 12. 03 울산함 인수 및 명명식



1980. 12. 03 울산함 인수 및 명명식

1982.11

현대미포조선 제2공장 준공

현대미포조선은 1982년 11월 울산 염포동(현 방어동)의 제2공장을 준공했다. 25만 톤 1기, 30만 톤 1기, 40만 톤 2기 등 4개의 도크를 추가로 확보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수리조선소로 거듭났다.

1982. 11. 02 현대미포조선 전경



1982.12

해외 발전설비 첫 턴키 수주

현대중공업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한 플랜트사업에 진출하면서 종합 중공업 회사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카타이프(Makkah-Taif)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로 해외 발전설비 첫 턴키 수주에 성공, 이후 해외 대형 발전플랜트 시장을 공략해 나갔다.



1982 사우디아라비아 마카타이프 화력발전설비 전경

1983.10

건설장비 사업 출범

건설장비사업본부는 1983년 10월 중기계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영역을 재조정했다. 이로써 1979년 조선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관리본부 등 3개 사업본부에서 1983년 말 조선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철구사업본부, 철탑사업본부, 석유화학사업본부, 중기계사업본부, 관리본부 등 7개 사업본부체계를 갖췄다.



건설장비 공장 전경

1983.11

용접기술연구소 준공

조선, 해양, 플랜트 등의 중공업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용접 기술의 자립과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1982년 8월 용접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의 용접 관련 연구소였다. 이듬해인 1983년 11월 독자적인 용접 연구소 건물을 준공하고 당시 최고의 장비와 시설을 도입했다.



1983. 11 용접연구소 준공



1983. 11 용접연구소 준공 기념



1983. 11 용접연구소 전경

1984.10

선박해양연구소 준공

1982년 5월 선박개발연구부가 종합연구소에서 분화한 후 1983년 6월 수조동, 연구동, 공작동 등 주요 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정주영 창업자는 직접 헬기를 타고 현대중공업 상공을 돌아보고 난 뒤 영빈관 동쪽을 부지로 정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단일기업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연구소를 짓기는 처음이었다. 1984년 10월 준공과 함께 선박해양연구소로 거듭났다.



1984. 10. 06 선박해양연구소 준공

선박해양연구소 전경



선박해양연구소 수조에서 선박 모형 테스트



1986.12

세계 최대 철광석 운반선 건조

1986년 '세계우수선박'으로 선정된 노르웨이 '시그 베르게센'의 '베르게스탈'호는 세계 최대 36만 5000톤급 철광석 운반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했다. 성인 700만~800만 명을 모두 합친 중량을 동시에 실을 수 있으며, 갑판 크기만도 동대문운동장의 2배였다. 입찰 때부터 세계 유수 조선회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6. 12 세계 최대 36만 5000톤급 철광석 운반선 베르게스탈호



1986. 12 베르게스탈호 시운전



1986. 12 베르게스탈호 인도 행사

1987.07

노동조합 설립

민주화의 물결 속에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같은 달 15일에는 현대미포조선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현대중공업은 1987년 7월 28일 노동조합 설립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 진통을 넘어 노사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1988. 07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출범식



1988.07

현대로봇산업 설립

현대중공업은 1986년 5월 연산 100대 규모의 로봇 조립공장을 가동하며 로봇사업에 첫 진출했다. 이후 국내 산업의 자동화, 공정합리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자 1988년 7월 '현대로봇산업'을 설립해 로봇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1988. 10. 07 현대로봇산업 창립 기념식



1988. 10. 07 현대로봇산업 기념식에서 로봇 시연

1989.09

현대중장비산업 설립

1988년 중형 굴착기 HX80 등 4개의 독자모델을 처음 선보인 후 1989년 9월 건설장비사업본부를 독립시켜 '현대중장비산업'을 설립했다. 지속적인 독자모델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해외시장 다변화 등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갔다.



1989. 09. 01 현대중장비산업 설립



1988 현대중장비산업 공장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 ~ 2001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

1994.06

한국 최초 LNG선 건조

1991년 9월 LNG 공장 준공과 함께 LNG 1호선 건조에 착수했다. '현대유토피아'호로 명명된 이 국적선은 12만 5000㎥급 탱크에 천연가스 수송이 가능했다. 안정성이 장점인 모스 타입을 채택하며, 독립된 알루미늄 구형 탱크 4기를 탑재했다. 대표적 고부가가치선인 LNG선을 국산화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소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1992. 08 LNG 1호선 구형 탱크 탑재



1993. 02. 02 LNG 1호선 명명식



1993. 11 LNG 1호선 '현대유토피아'호의 시운전 모습

1996.06

제2야드(8·9도크) 가동

1996년 6월 제2야드(8·9도크)를 완공하면서 제2 도약을 향한 출발점에 섰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 모두가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정주영 창업자의 탁월한 혜안으로 선제적으로 도크를 증설하면서 2000년대 '조선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갔다.



1996 제2야드 건설공사



1996. 06 제2야드 8도크 완공



제2야드 도크 오픈 세레모니

1998.01

대형엔진 2000만 마력 생산 돌파

현대중공업은 1992년 1000만 마력 달성에 이어 1998년 1월 최단기간 대형엔진 2000만 마력 생산을 돌파했다. 일본 미쓰이의 59년, 미쓰비시의 60년보다 3배 이상 빠르게 기록을 달성하면서 세계 최대, 최고의 엔진 제작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했다.



1997. 05. 20 터빈 1호기 4만 4000kW 출하 기념식



1998. 01 대형엔진 2000만 마력 생산

1998.06

현대예술관 개관

1998년 6월 종합문화공간인 현대예술관 개관으로 '문화도시 울산'의 주춧돌을 마련했다. 3년 간의 공사 끝에 완공한 현대 예술관은 연면적 3만 3057㎡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을 고루 갖추고, 문화의 불모지였던 울산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과 행사를 계속 선보였다.



현대예술관 전경



1998. 06. 13 현대예술관 개관



현대예술관 댄스경연대회



현대예술관 찾아가는 음악회

1999.04

세계 최대 인도 200MW급 디젤발전소 준공

현대중공업은 인도 GMR로부터 200MW급의 세계 최대 디젤발전소 공사를 턴키 베이스로 수주하면서 세계 디젤발전설비 시장의 선도 지위를 확보했다. 인도 남부 항구도시인 마드라스에 건설된 디젤발전소에 7만 4000마력급(5만 3000kW급)의 초대형 저속엔진 4기를 설치, 디젤발전소의 대형화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1996. 11. 20 인도 디젤발전소 공사 수주



1998. 05. 21 인도 디젤발전소 건설공사



인도 GMR발전소 메인 엔진

1999.04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기공

1999년 4월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기공식을 가졌다. 전국 전문대학 최초의 제2 캠퍼스 승인이었다. 서부캠퍼스는 첨단 공업계열 중심으로, 신설되는 동부캠퍼스는 지식정보산업계열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99. 04. 17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기공식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준공식

1999.04

현대미포조선, 현대-비나신조선(HVS) 준공

1999년 4월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 국영조선공사와 합작으로 '현대-비나신조선(HVS)'을 준공해 한국 조선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 포문을 열었다. 현대-비나신조선은 수리·개조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뒤 2008년부터는 신조선업 전환을 추진했다.



1999. 04. 26 현대미포조선, 현대-비나신조선(HVS) 준공식

1999.08

비전 2010 선포 및 주식 상장

천년 역사의 끝과 시작 '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1999년 8월 24일, 현대중공업은 '비전 2010'을 선포하고 세계 최고의 중공업 회사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또 같은 날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비전 2010'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며 '국민 기업'으로 거듭났다.



1999. 08. 24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999. 08. 24 비전 2010 선포식

2000.08

힘센엔진 독자개발 완료

2000년 8월 중형엔진 독자모델인 '현대-힘센(HYUNDAI-HIMSEN)'을 개발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안팎의 비판적 시선 속에서도 1991년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약 10년 만에 힘센엔진 독자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2001. 10. 15 힘센엔진 수출 1호기 계약



2000. 08 힘센엔진 독자개발 완료



2001. 03. 28 힘센엔진 최종 승인 테스트 성공

2000.10

테크노디자인연구소 개소

현대중공업은 주력 제품의 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 전담연구소인 테크노디자인연구소를 신설했다. 제품의 기술력에 비해 소홀했던 소비자 취향의 디자인 개발 및 산업디자인을 주요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투자를 활성화해 나갔다.



2000. 10 테크노디자인연구소 개소



2006. 12. 15 테크노디자인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행사



2000. 10 테크노디자인연구소 테크노디자인연구실

2000.12

산업용 로봇 누적생산 5000대 돌파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산업용 로봇 누적 5000대 생산을 달성했다. 1986년 로봇 생산에 나선 이후 1991년 1000대를 생산한 지 9년 만이었다. 독자기술 개발과 생산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시장을 선도한 결과였다.



현대중공업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생산라인



1999. 12. 16 HR시리즈 로봇, 국내 최초 자동차 메인 차체 조립 라인 설치



2000. 12. 15 산업용 로봇 누적 5000대 생산기념 행사

2001.02

세계 최대 심해 FPSO 완공

현대중공업은 2001년 2월 회사 최초의 신조 FPSO인 지라솔 FPSO의 완공식을 가졌다. 당시 전 세계에 발주된 FPSO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메이저 해양설비 전문기업으로 부상했다.



지라솔 FPSO 안벽 접안



지라솔 FPSO 야경



2004. 02 키쫘바 FPSO 출항

2001.03

정주영 창업자 영면

2001년 3월 21일 밤 정주영 창업자가 향년 86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정주영 창업자는 일생을 통해 부강한 조국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중공업, 건설, 자동차, 전자, 금융, 석유화학, 유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시대의 거목이었다. 정주영 창업자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기리는 조문 행렬이 끊없이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잇달아 애도를 보내왔다. '한국 경제의 선각자', '시대를 앞서간 개척자'로서 정주영 창업자는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는 별로 남았다.



2001. 03. 25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영결식



검단산 운구 행렬



청운동 자택에서 운구 행렬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 ~ 2009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

2002.02

현대중공업그룹 출범

2002년 2월 28일, 마침내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가 승인됐다. 출범과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나가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했다.



2002. 03. 22 김형벽 회장의 창립 30주년 기념사



2002. 03. 22 현대중공업 창립 30주년 기념식

2002.05

삼호중공업 인수

2002년 5월 1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삼호중공업 인수를 발표했다. 이로써 삼호중공업은 1999년 10월 이후 지속된 2년 6개월여의 위탁경영 시대를 마감하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일원으로 합류해 새 출발에 나섰다.



삼호중공업 선박 건조 모습

2002 삼호중공업 전경



2003.12

산업용 로봇 연 1000대 생산 돌파

현대중공업은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 이어 중국·인도·중동·미주 지역까지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2013년 말 국내 최초로 산업용 로봇 연간 1000대 생산 및 판매에 성공했다.



2003. 12. 05 산업용 로봇 연 1000대 생산 판매 달성 기념식



2005. 10. 21 산업용 로봇 누적 생산 1만 대 돌파 기념식

2004.04

세계 최대 프로펠러 제작

무게 106.3톤, 직경 9.1m에 이르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78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에 장착됐다. 이 프로펠러는 2004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연초에 선정된 대형 크랭크샤프트와 함께 엔진기계사업에서만 한 해 2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4. 05 세계 최대 프로펠러 제작, 탑재

2004.10

세계 첫 육상 건조 선박 진수

현대중공업은 200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주량을 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도크 증설 없이 건조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육상건조공법을 개발했다. 육상건조공법은 땅 위에서 선박을 조립, 특수장비(스키드)에 실어 항구(안벽)까지 옮긴 뒤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 띄우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은 러시아 노보십(Novoship)사의 10만 5000톤급 원유운반선(COT, Credit Oil Tanker)으로, 이 선박은 2004년 10월 진수를 거쳐 2005년 1월 'NS 챌린저(Challenger)' 호로 명명됐다.



2004. 10. 05 NS 챌린저호 바지선 진수

2004. 09 세계 첫 육상 건조 선박 NS 챌린저호 전경



2005.05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 누계 5000만 마력 달성

2005년 5월 6일 현대중공업은 7만 7600마력급 대형엔진의 시운전에 맞춰 5000만 마력 달성 기념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운전한 대형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1933번째 엔진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한 56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됐다.



2005. 05. 06 대형엔진 생산 누계 5000만 마력 달성 기념식

2007.03

경영철학 및 노사 공동선언 선포

창립 35주년을 맞은 2007년 3월 임직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선언'이 선포됐다. 이날 글로벌 기업의 국제적 위상 확립,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발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기업문화, 부가가치 극대화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2007. 03. 22 경영철학 및 노사 공동선언 선포식

2007.05

세계 최대 전자제어 엔진 공식 시운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신개념의 전자제어 엔진을 선보였다. 전자제어 엔진은 연료 효율은 물론 유해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7. 05. 29 세계 최대 전자제어 대형엔진 공식 시운전

2007.05

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

2007년 5월 25일 현대중공업이 직접 설계·건조한 한국 최초의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건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일군 쾌거였다. 대한민국의 첫 이지스함은 국민의 안위와 국방력 강화에 힘썼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로 '세종대왕함(KDX-III)'으로 명명됐다.



2007. 05. 25 세종대왕함 진수식

2008.05

군산조선소 기공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08년 5월 7일 오후 기공식을 갖고,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를 열었다. 군산조선소는 군장산업단지 내 180만㎡ 부지에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 세계 최대의 100만 톤급 도크 1기와 1600톤 골리앗크레인 등을 갖춘 초대형 조선소의 첫발을 떼었다.



2008. 05 군산조선소 기공식

2008.05

태양광설비 공장 완공, 그린에너지 사업 진출

2008년 5월 음성 태양광공장 준공식이 거행됐다. 태양광1공장은 30MW급 태양광 셀 생산설비를 구축, 약 2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4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로써 태양광 셀에서부터 태양광 모듈을 모두 아우르는 태양광사업의 기초 진용이 완성됐다.



충북 음성 태양광공장 전경



2008. 05. 20 태양광공장 준공식 및 투자 협약식

2008.11

건설장비 인도 생산공장 설립

현대중공업은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뽀네(Pune)산업단지에 약 5200만 달러를 투입, 대지 20만 2000㎡(6만 1000평), 건물 3만㎡(9000평) 규모의 공장과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건설장비 인도법인 전경



2008. 11 건설장비 인도 생산공장 준공식

2009.01

해양 H도크 완공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 FPSO 도크 건설이라는 대역사를 완성했다. 길이 490m, 폭 115m, 높이 13.5m, 세계 최대인 100만 톤급의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현대중공업의 열 번째 도크, H도크에는 총 1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도크의 명칭 'H'는 '현대'와 '해양'의 각 첫 글자에서 따왔다.



2008. 11 해양 H도크 골리앗크레인 설치



2008. 05. 15 해양 H도크 건설



2009. 04. 22 해양 H도크 전경

2009.06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와 발사장 주요 공사 수행

현대중공업은 2007년 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나로호 발사대시스템 공사를 수주, 각종 플랜트 공사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까지 단 1년 10개월 만에 발사대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작했다.



2009. 04. 15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KSLV-1) 발사대 지상 인증시험



2009. 06. 11 나로호 발사체 전경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 ~ 2015



<p>PART. 1</p> <p>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p>	<p>PART. 2</p> <p>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p>	<p>PART. 3</p> <p>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p>	<p>PART. 4</p> <p>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p>	<p>PART. 5</p> <p>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p>	<p>PART. 6</p> <p>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p>
--	--	---	--	--	---

2010.08

현대오일뱅크 인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자금수혈이 불가피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은 1999년과 2006년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후 11년이 흐른 2010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은 IPIC에 우선매수권을 행사, 다시 현대오일뱅크를 품에 안았다. 조선·해양사업을 중심으로 엔진기계·건설장비·그린에너지사업에 이어 정유와 그 파생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중공업그룹의 면모가 완성된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2010. 08. 23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 현대오일뱅크 방문



현대오일뱅크 정문

2010.09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 누계 1억 마력 달성

세계 최초로 선박용 대형엔진 생산 누계 1억 마력을 돌파하며 세계 엔진 역사를 다시 썼다. 현대중공업이 대형엔진 생산을 시작한 지 31년 만에 이룬 대기록이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높이 3.1m 크기의 삼각형 모양의 현대 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 제막식 및 기념행사를 가졌다.



2010. 09. 29 대형엔진 생산 1억 마력 달성 기념 조형물



2010. 09. 29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 1억 마력 달성 기념식



1억 마력 달성 MANB&W 대형엔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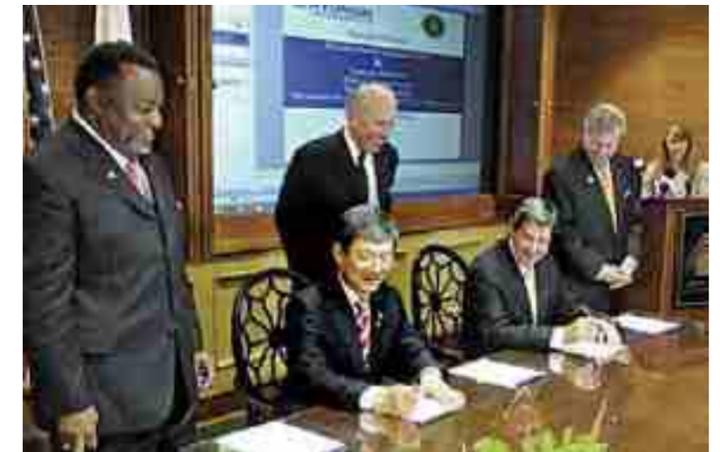
2010.09

국내 최초 미국 변압기 공장 건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에 변압기 공장을 설립하고 세계 최대 전력기자재 시장을 갖고 있는 북미 지역 공략을 가속화했다. 9월 17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이재성 사장을 비롯해 밥 라일리 앨라배마 주지사, 토드 스트레인지 몽고메리 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압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단일 세계 최대인 울산 변압기 공장으로 시작해 북미 앨라배마 공장, 유럽의 불가리아 공장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변압기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2010. 09. 17 미국 변압기 공장 기공식



2010. 07. 16 미국 변압기 공장 계약 서명



2010. 06 국내 변압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6억 달러 수주 계약식

2011.03

세계 최초 스마트십 건조

2011년 3월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과 제어기, 각종 기관 등의 운항 정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박 내 통합시스템을 원격으로 진단·제어할 수 있는 최초의 '스마트십(Smart Ship)'을 선보였다.



2011. 03 세계 최초 스마트십 '머스크 코나크리' 호



2011. 03. 25 'IT 기반 선박용 토탈 솔루션 개발과제 완료 보고회



2011. 03 스마트십 시연

2011.06

연 4000대 규모 로봇 신공장 준공

날로 증가하는 로봇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신공장을 구축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비해 약 3배 이상 확대된 8250㎡(약 2500평) 규모의 로봇 생산공장을 갖추게 됐다. 신공장 준공과 함께 자동차 조립용, LCD 운반용 로봇 등 로봇 생산능력이 연간 1800대에서 4000대로 2배 이상 향상됐다.



2011. 06. 02 로봇 신공장 준공 및 안전지원제



신공장 전경

2011.09

중앙기술원 종합연구동 준공

2010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연면적 1만 47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완공했다. 이후 종합연구동은 고부가가치 선박, 육·해상 설비, 엔진, 에너지·환경 등 혁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종합연구동 전경



중앙기술원 종합연구동 재료시험실



2011. 09 종합연구동 준공

2011.10

아산나눔재단 설립

2011년 10월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실현을 향한 창업자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이 재단에는 현대중공업그룹 2380억 원, 정몽준 대주주의 사재 2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의 자금이 출연됐다. 이후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의 양극화 해소, 청년 세대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 4월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지원 공간 '마루(MARU) 180'을 오픈했다. 서울 역삼로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603㎡ 규모로 문을 연 마루180은 2020년까지 총 237개의 스타트업에 시설, 공간, 교육,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입주기업 업무공간



2011. 10. 20 아산나눔재단 개소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전경

2011.10

카타르 펄 GTL 설비 완공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펄 지역에 천연가스 액체연료화 시설인 GTL 설비를 완공했다. 하루 16억 입방피트(ft³)의 천연가스를 분리, 탈황, 정제해 GTL 공정의 원료인 메탄과 부산물인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생산하는 최첨단 가스설비였다. 현대중공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달러에 달한 이 공사에 연인원 780만 명을 투입, 5년여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2011. 10 카타르 초대형 '펄 GTL(가스액체연료화시설)' 설비 완공

2011.11

중국 휠로더 공장 준공

총 4900만 달러를 투자한 중국 휠로더 공장은 28만 5000㎡ 규모로 2010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011년 11월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5톤과 3톤급 휠로더를 연간 8000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9월, 건설장비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에 생산 누계 35만 대를 달성한 한편, 사상 첫 직수출 1조 원을 돌파했다.



2011. 11. 08 중국 태안 휠로더 공장 준공



2011. 09. 29 건설장비 생산 누계 35만 대 돌파 및 사상 첫 직수출 1조 원 돌파

2012.02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출범

2012년 2월 8일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이 출범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임직원 95%가 매달 급여 1% 기부를 시작으로 임직원 주유소 현장근무 수당, 각종 행사를 통한 수익금, 일선 주유소 사장들의 성금 등 빠르게 나눔문화를 확산시켰다.



2012. 02. 08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현판식

2012.10

음성공장 태양광R&D센터 완공

음성공장 태양광R&D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1년 9월부터 총 226억 원을 투입, 기존의 태양광 모듈1공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700㎡(831평) 규모의 연구개발 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5MW 규모의 후면전극형 태양광 셀 파일럿라인을 비롯하여 태양광 셀·모듈 개발 및 분석장비 등 36개의 첨단 개발기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2012. 10. 30 음성공장 태양광R&D센터 완공

2014.04

세계 최초 LNG-FSRU 건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FSRU 건조에 성공해 명명식 가졌다. '바다 위 LNG 기지'로 불리는 이 설비는 리투아니아 연안에 설치돼 7만 톤의 가스를 저장, 공급하게 된다. 특히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직접 명명식 스폰서로 나서 세계 최초 신조로 건조된 LNG-FSRU의 이름을 '독립'이란 뜻의 '인디펜던스(Independence)'호로 명명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세계 최초 LNG-FSRU '인디펜던스'호



2014.04

현대오일터미널 준공

현대오일뱅크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이 2014년 4월 9일 준공과 함께 유류저장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울산 신항 남항부두의 공유수면 8만 7000여㎡를 매립해 건설한 상업용 유류저장시설로 5만DWT급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8면의 육상 출하시설과 18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35기의 저유탱크를 갖췄다.

현대오일터미널 전경



2015.05

조선업계 최초 선박 2000척 인도 달성

현대중공업은 드릴십 '오션 블랙라이언' 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2000척 인도를 완료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랜 100여 년의 조선 역사를 지닌 유럽과 일본의 조선업체들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같은 해 현대미포조선은 선박 건조 누계 800척을, 현대삼호중공업은 600척을 달성했다.



2015. 05. 22 2000번째 인도선인 드릴십 오션 블랙라이언호



2015. 05. 22 선박 2000척 인도 달성 기념식

2015.06

건설장비 50만 대 생산 달성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50만 대 생산은 1987년 첫 굴착기 생산 28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1985년 건설장비 개발에 착수한 현대중공업은 1987년 426대의 굴착기를 생산하며 건설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은 휠로더, 지게차, 백호로더 등으로 생산품목을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2015. 05 차세대 굴착기 출시(HX시리즈)



2015. 06. 01 건설장비 50만 호기 출하 달성

2015.11

정주영 창업자 탄신 100주년

아산 정주영 창업자의 탄신 100주년 주년을 맞아 '아산 100년, 불굴의 개혁자 정주영'을 슬로건으로 기념음악회, 학술 심포지엄, 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울산 현대예술관에서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가 열렸고, 울산박물관에서는 창업자의 생전 활동상을 담은 '불굴의 의지와 도전'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2015. 11. 25 정주영 창업자 탄신 100주년 음악회

2015. 11. 25 정주영 창업자 탄신 100주년 학술 심포지엄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 ~ 2022



PART. 1

조선입국을 향한
첫발
1972~1977

PART. 2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산업 선도
1978~1992

PART. 3

종합중공업회사로
발돋움
1993~2001

PART. 4

현대중공업그룹의
출범과 비상
2002~2009

PART. 5

조선산업의 시련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변화
2010~2015

PART. 6

첨단 기술 중공업의 실현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2016~2022

2016.01

호주 고르곤 LNG플랜트 완공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12일 총 51기의 모듈 가운데 마지막인 6200톤급 모듈 1기를 호주로 출항시키며 초대형 LNG 플랜트 고르곤(Gorgon) 공사를 완료했다. 미국 세브론사로부터 수주한 고르곤 공사는 호주 서북부 200km 해상의 바로우(Barrow)섬에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중공업은 총 30항차에 걸쳐 51기의 모듈을 완공했다.



2016. 01. 11 호주 고르곤 LNG플랜트 완공

2016.02

중저압차단기,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현대중공업 'HG시리즈 중저압차단기' 3종(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Design Award) 201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2016. 02. 26 중저압 차단기 HG시리즈,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6.03

힘센엔진 생산 누계 1만 대 달성

힘센엔진(HiMSEN)이 15년 만에 '생산 누계 1만 대' 달성의 대기록을 세웠다. 힘센엔진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독자 기술로 만든 중형엔진으로,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독창적인 모듈화 설계와 뛰어난 출력 등으로 호평받으며 '대한민국10대 신기술' (2002년), '세계일류상품' (2004년)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6. 03. 04 힘센엔진 생산 누계 1만 대 달성 기념식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엔진

2016.07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오션 그레이트화이트'호 인도

7월 15일 반잠수식 시추선 '오션 그레이트화이트(Ocean Greatwhite)'호를 미국 다이아몬드 오프쇼어사에 인도했다. 길이 123m, 폭 78m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이며, 최대 수심 3000m 해상 작업과 1만 670m까지 시추 작업이 가능하다.



2016. 07. 15 오션 그레이트화이트호 인도

2016.12

대형엔진 저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P SCR) 개발

현대중공업이 대형엔진에 적용하는 저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개발,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로써 모든 중·대형 엔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생산이 가능해져 선박·엔진 종류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형엔진조립1공장에서 검증 시연회를 열고, 1만 600마력급 대형엔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등 성능을 점검했다.



2016. 12. 20 대형엔진 저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검증 테스트

2016.12

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

2016년 12월 5일 엔지니어링 기반 서비스 전문회사를 표방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현대중공업 조선,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의 선박·해양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190여 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20년까지 세계 선박·해양 서비스 시장에서 정상급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1. 07. 29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개소



2016. 12. 05 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



현대글로벌서비스 싱가포르법인 출범

2017.01

현대로보틱스, 대구 신공장으로 확장 이전

현대로보틱스는 독립법인 출범에 맞춰 대구 신공장으로 확장 이전했다. 신공장은 공장 내의 각종 설비와 기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로 설계됐으며, 자동화 라인을 적용해 생산규모를 기존의 두 배에 가까운 8000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다품종의 표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로봇 산업의 특성에 맞춰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강소기업형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현대로보틱스 대구 신공장 설비

현대로보틱스 대구 신공장



2017.02

프로펠러 생산 누계 5000호기 돌파

1985년 프로펠러 생산을 시작한 지 31년 6개월만에 생산 누계 5000호기를 돌파했다. 이는 90~15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업체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기록이었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5000번째 프로펠러는 지름 10.6m, 무게 77톤 규모로, 그리스 테나리스(Thenamaris)의 30만 톤급 원유운반선에 탑재됐다.



2017. 02. 03 생산 누계 5000호기 프로펠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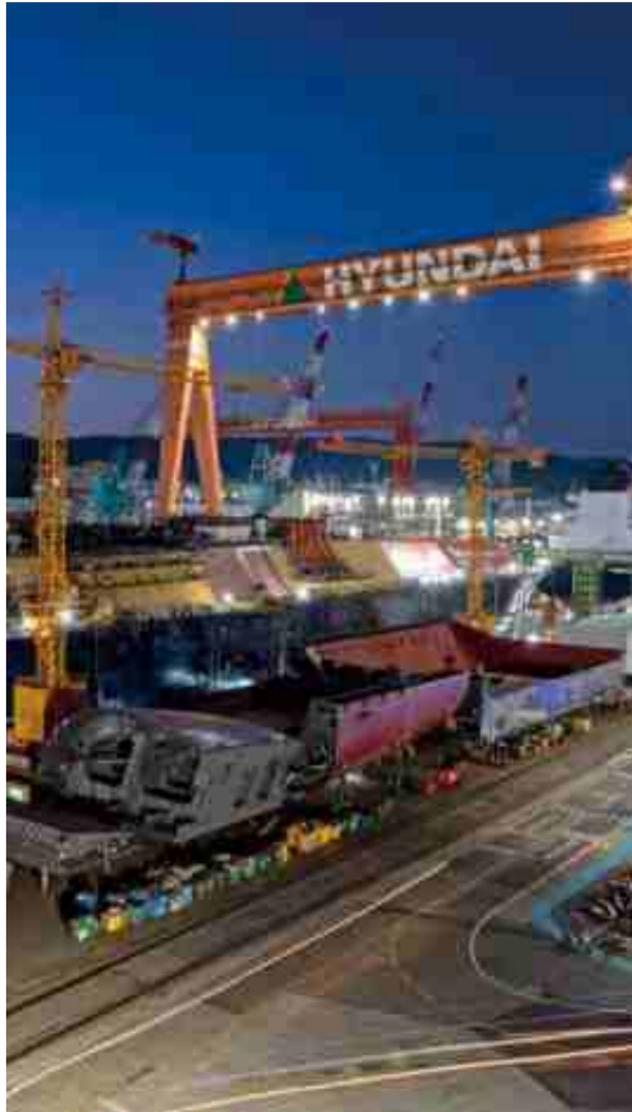


2017. 02. 03 프로펠러 생산 누계 5000호기 달성 기념식

2017.04

현대중공업 사업분할

2017년 4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가 분리됐고,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 3사와 신사업으로 가세한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함께 그룹의 뼈대를 새롭게 세웠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와 2016년 12월 분리된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6개사는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서 '새 출발 기념 식수' 행사를 갖고, 독립법인의 성공적인 출범을 다짐했다.



▲ 현대중공업



▲ 현대로보틱스



▲ 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

2017.04

현대건설기계 출범

현대건설기계는 출범식을 갖고 2023년까지 글로벌 매출 7조 원 달성, 건설기계산업 '글로벌 톱 5' 진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독립 브랜드로서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딘 현대건설기계는 출범과 함께 국제건설기계전에 부스를 마련, 굴착기와 휠로더 등 14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종합 건설기계 메이커로서 한층 강화된 위상을 과시했다.



2017.05.24 현대건설기계 출범



2017. 05. 24 현대건설기계 출범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공기영 전 사장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2017.04

현대일렉트릭 출범

현대일렉트릭은 사업 분할과 함께 국내 유일의 전력 인프라 일체를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글로벌 경영 체제 구축', '표준양산형 제품 비중 확대', '주력 제품 프리미엄화', 'ICT 에너지 솔루션 확대', '글로벌 R&D 경쟁력 강화'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독자경영의 새로운 길에 나섰다.



2017. 03. 31 현대일렉트릭 비전 선포

2017.04

현대로보틱스 출범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의 로봇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2017년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며 스마트팩토리를 구축, 연 8000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2017. 04. 04 현대로보틱스 출범

2017.09

컨테이너선 풀 탠덤 공법 적용 성공

현대중공업은 9월 1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 건조에 풀 탠덤 공법(Full Tandem)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풀 탠덤 공법은 블록들을 차례로 탑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선수·선미부의 핵심 블록들을 나중에 삽입해 6주 만에 블록 탑재를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이다.



2017. 09. 22 2896호선 풀 탠덤 공법 적용 성공

2017. 07. 27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 풀 탠덤 공법 진수



2017.10

현대건설기계 유럽 통합 신사옥 준공

현대건설기계가 벨기에에 유럽지역 통합 신사옥을 완공,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사옥은 1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3층 규모 건물로 대형 부품 물류센터, 전시장, 교육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벨기에 테센데를로시에 위치한 유럽 통합 신사옥



2017. 10 현대건설기계 유럽 통합 신사옥 준공 행사

2017.11

세계 최대 ESS센터 준공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11월 세계 최대 ESS센터를 구축했다. 지상 2층 연면적 1180㎡ 규모에 달하는 ESS센터의 저장 용량은 51.5MWh로 당시까지 구축된 산업용 ESS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였다. 전기는 물론, 가스, 압축공기 등 에너지 전반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2017. 11 51.5MWh급 ESS센터 준공



2017. 11 ESS센터 전력현황판

2018.03

사우디아라비아 슈퀘이크 발전소 '완공증명서' 획득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슈퀘이크(Shuqaiq) 화력발전소의 연속 최대출력 테스트(TMCR)를 무결점으로 마치고 발주처인 사우디전력공사(SEC)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PAC, 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를 받았다. 2013년에 수주한 슈퀘이크 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홍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264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발전소다.



2018. 03. 15 공사완공증명서를 획득한 2640MW급 사우디아라비아 슈퀘이크 화력발전소



2018. 03. 15 슈퀘이크 화력발전소 설비



2018. 05. 02 제다 사우스, 슈퀘이크 발전플랜트 'MEED 최우수 프로젝트' 선정

2018.03

현대중공업지주 출범

2018년 3월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로보틱스의 사명을 현대중공업지주로 변경, 지주회사 전환을 일단락지었다. 이후 현대중공업지주는 미래사업 발굴과 투자, 그룹 사업 재편과 확장 등 그룹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에 주력하면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2018. 03. 30 현대중공업지주주식회사 출범식

2018.12

국내 최대 통합안전교육센터 개소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이론부터 실습·체험까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통합안전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안전교육센터는 연면적 3591㎡로 이론교육장 5개소, 실습교육장 5개소, 체험교육장 1개소 등 총 11개 교육장으로 구성됐다. 이론과 작업현장 실습·체험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은 현대중공업 통합안전교육센터가 유일하다.



2018. 12 통합안전교육센터 곤돌라 교육



통합안전교육센터 전경

2019.04

뉴질랜드 최신에 군수지원함 진수

2016년 6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최신에 군수지원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 이 군수지원함은 길이 173m, 폭 24m 크기에 최고 속력은 16노트(29.6km/h)에 이르고, 1만 톤에 달하는 보급 유류와 20피트 크기 컨테이너 12개를 적재할 수 있다. 운항 속력에 따라 전기 추진과 디젤기관 추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했다.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

2019.05

현대중공업지주, 5G 기반 로봇, 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 협력 협약 체결

현대중공업지주는 KT와 5G 기반 로봇·스마트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향후 2~3년간 5G 기반의 스마트 로봇, 모바일 서비스 로봇,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을 공동 개발하고, 현대중공업지주는 로봇, 자동화 설비,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KT는 5G, AI, 클라우드 등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ICT 플랫폼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2019. 05. 10 현대중공업지주-KT, '5G 기반 스마트 사업협력' 협약 체결



2019. 11 5G 기반 사업협력 성과 발표회

2020.06

신안전문화 선포식

현대중공업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본사 체육관에서 '신안전문화 선포식' 행사를 열었다. 선포식은 전 임직원이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0. 06 신안전문화 선포식



2020. 06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2020.06

현대예술공원, '울산 1호 공동체정원' 지정

현대예술공원은 울산 동구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울산의 첫 공동체정원으로 등록됐다.



현대예술공원 전경



2020. 06. 17 현대예술공원 울산 1호 공동체정원 현판식

2021.01

해양플랜트 1만 톤 크레인 최대 중량물 인양

현대중공업은 킹스키(King's Quay)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에 단일 크레인으로는 국내 최대 중량인 9100톤 규모의 초대형 해양설비를 탑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2018년 미국 원유개발회사인 머피사로부터 수주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로 2019년 8월 착공해 1년 7개월 만인 2021년 3월 모든 모듈을 조립·설치했고, 이후 3개월 동안 거주구와 폐열회수장치 등을 추가로 탑재한 뒤 기계 시운전 및 마무리 작업을 완료했다.



2021. 06. 29 해양 킹스키 공사 출항

2021.06

서울대학교와 AI 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현대중공업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중공업 분야 AI 응용기술 기반의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과 서울대학교는 차세대 선박 개발과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산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AI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2021. 06. 02 서울대와 AI 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2021.06

아비커스, 국내 최초 선박 완전 자율운항 성공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kus)가 국내 최초로 선박의 완전 자율운항에 성공했다. 아비커스는 2021년 6월 경북 포항운하 일원에서 열린 '선박 자율운항 시연회'에서 12인승 크루즈 선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운항하는 데 성공했다.



2021. 06. 16 아비커스 선박 자율운항 시연회

2021.07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 선포

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22일 울산 본사 본관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 선포식을 갖고,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 재도약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노사선언은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조선산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갈등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21. 07. 22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 선포식

2021.07

현대제뉴인 출범

2021년 7월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사인 현대제뉴인이 출범했다. 신임 대표이사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과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사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국내 1위의 건설장비업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로써 현대건설기계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나란히 새롭게 출범한 현대제뉴인 산하에 편제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제뉴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톱(Top) 5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1. 07 현대제뉴인 출범식

2021.08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현대중공업그룹은 8월 19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며, 2020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개월간 진행된 인수전을 마무리했다. 권오갑 회장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 인천공장을 방문해 그룹의 새 일원으로 출발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손동연 사장에게 정주영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담긴 액자를 전달했다.



2021. 08. 20 경영진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방문

2021.09

현대중공업 코스피 상장

현대중공업은 시장과 투자자의 기대 속에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9월 17일 코스피에 상장됐다. 현대중공업은 9월 7일과 8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는데, 최종 40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공모가 6만 원에서 86%가 오른 11만 1500원으로 첫 날 거래를 마감했다.



2021. 09. 17 현대중공업 코스피 상장



2021. 09. 17 현대중공업 상장을 알리는 한국거래소 전광판

2021.10

누리호(KSLV-II) 발사대시스템 제작, 구축

현대중공업은 제2발사대의 기반시설 공사(토목, 건축)를 비롯해, 발사대 지상기계설비(MGSE), 발사대 추진제공급설비(FGSE), 발사대 발사관제설비(EGSE) 등 누리호의 발사대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 설치한 것은 물론, 발사 운용까지 수행했다. 이와 함께 발사대시스템 공정기술의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8. 11. 28 누리호 엔진 시험용 로켓 발사대

2021.11

그룹 ESG경영 비전 선포

현대중공업그룹은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Future From the Ocean)'를 그룹 ESG경영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Beyond Blue Forward to Green'을 선포했다. 그룹 ESG 비전과 슬로건 선포에 따라 ESG 분야별 중점관리 영역을 설정해 그룹의 공동 ESG경영활동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전사 ESG경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SG경영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켰다.



2021. 07. 08 제1차 그룹 ESG 자문위원회

2022.01

현대중공업그룹, CES 2022 참가

202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 2022'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미래 조선·해양과 에너지, 기계 등 3대 핵심 사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술로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액화수소 운반 및 추진시스템, 지능형 로봇틱스 및 솔루션 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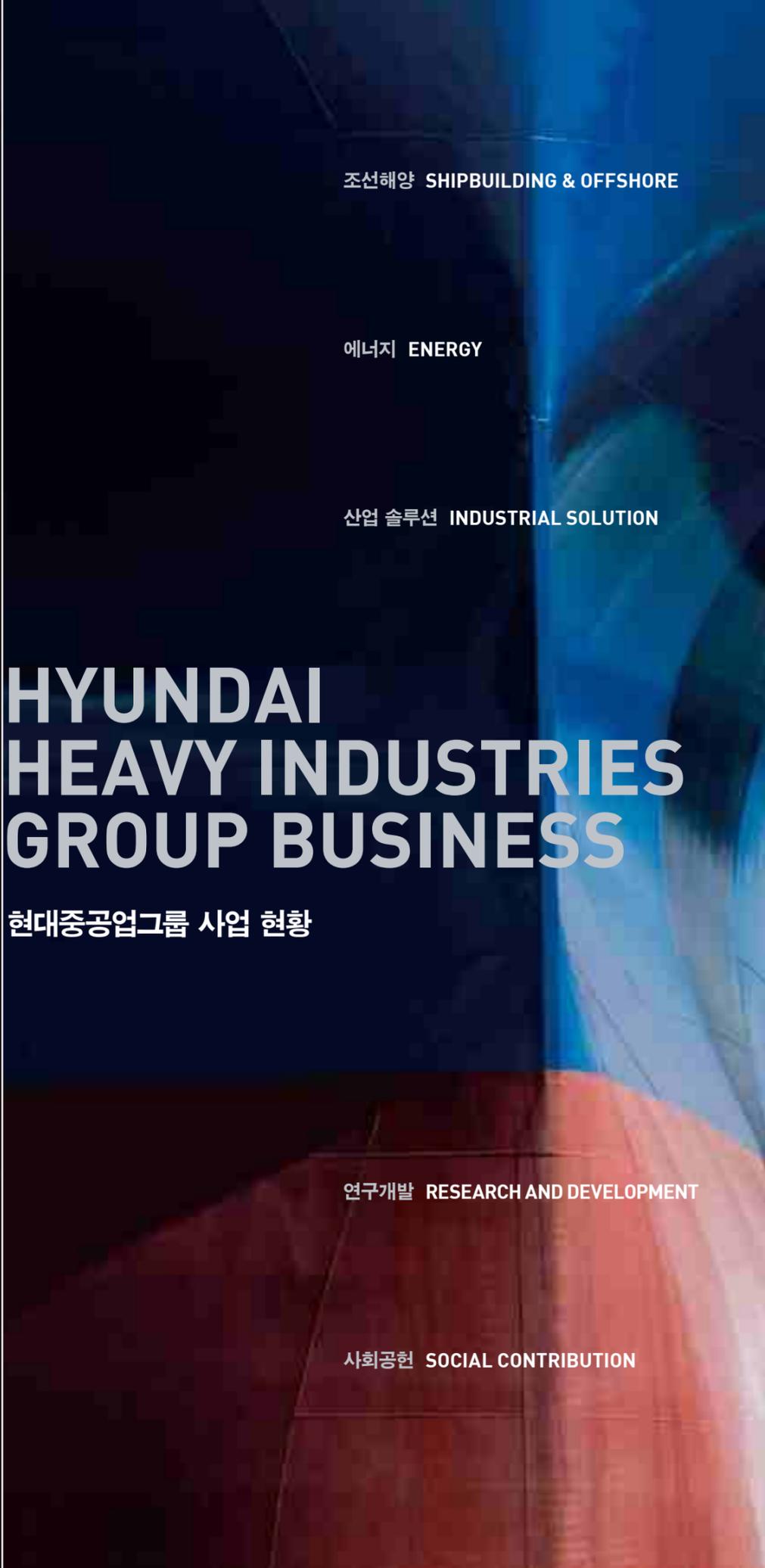
프레스 콘퍼런스를 진행 중인 정기선 사장



2022. 01. 07 CES 2022 현대중공업그룹 부스 전경



정기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수소 선박 기술을 소개하는 정기선 사장



조선해양 SHIPBUILDING & OFFSHORE

에너지 ENERGY

산업 솔루션 INDUSTRIAL SOLUTION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BUSINESS

현대중공업그룹 사업 현황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조선해양 분야의 'GLOBAL LEADER'로 발돋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부문은 조선, 선박 엔진·추진 시스템, 해양구조물 제작에서 선박 수명관리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한 고효율, 친환경 '마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HIPBUILDING & OFFSHORE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조선 Shipbuilding

해양 Offshore & Engineering

특수선 Special and Naval Shipbuilding

엔진기계 Engine & Machinery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현대중공업

조선사업은 10개의 건조 도크와 9개 골리앗 크레인
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있
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창사 10년 만에 선박 건조량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1972년 설립 후 현재까지 50여 개국, 320여 선주사에
2200여 척의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HYUNDAI HEAVY INDUSTRIES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HYUNDAI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조선 Shipbuilding

해양 Offshore & Engineering

특수선 Special and Naval Shipbuilding

엔진기계 Engine & Machinery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해양플랜트사업은 1600톤 골리앗 크레인 2기와 1만 톤 부유식크레인, 100만 톤급 건조도크를 포함한 최고의 생산설비와 우수한 기술력,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해양 설비 및 발전·화공플랜트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RFCC, LNG 탱크, 우주발사대, 국제핵융합 실험로 등 특수기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조선 Shipbuilding

해양 Offshore & Engineering

특수선 Special and Naval Shipbuilding

엔진기계 Engine & Machinery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특수선사업부는 함정 및 특수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화된 인력과 최신 시설, 함정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1만 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및 3000톤급 다목적 호위함을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하였고, 차기 구축함 및 차기 잠수함 건조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함, 필리핀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 2척 등의 설계 및 건조를 통해 방위산업 수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조선 Shipbuilding
해양 Offshore & Engineering
특수선 Special and Naval Shipbuilding
엔진기계 Engine & Machinery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현대중공업은 세계 대형엔진시장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엔진제작사로서 선박용 엔진을 비롯하여 추진시스템, 박용 친환경 제품 및 육상용 엔진발전설비를 최고 품질로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 전 제 의

대 명 | 엔 진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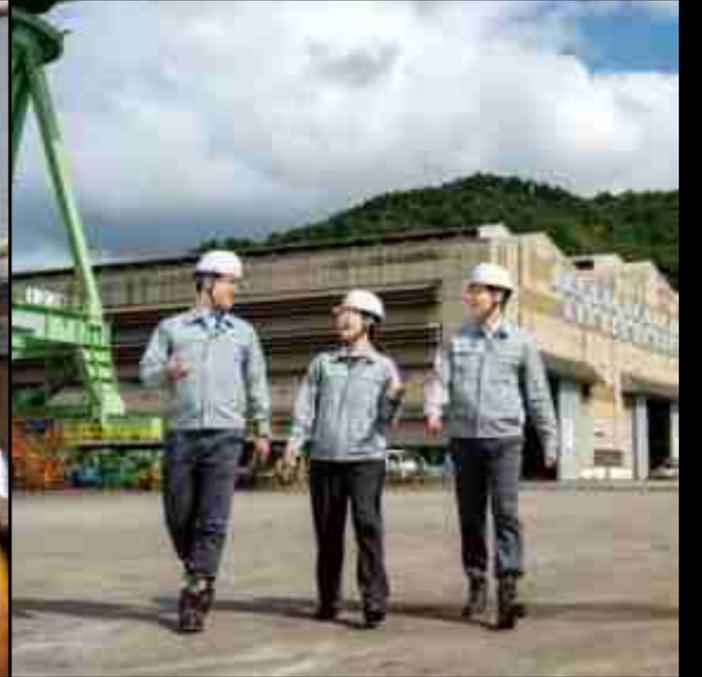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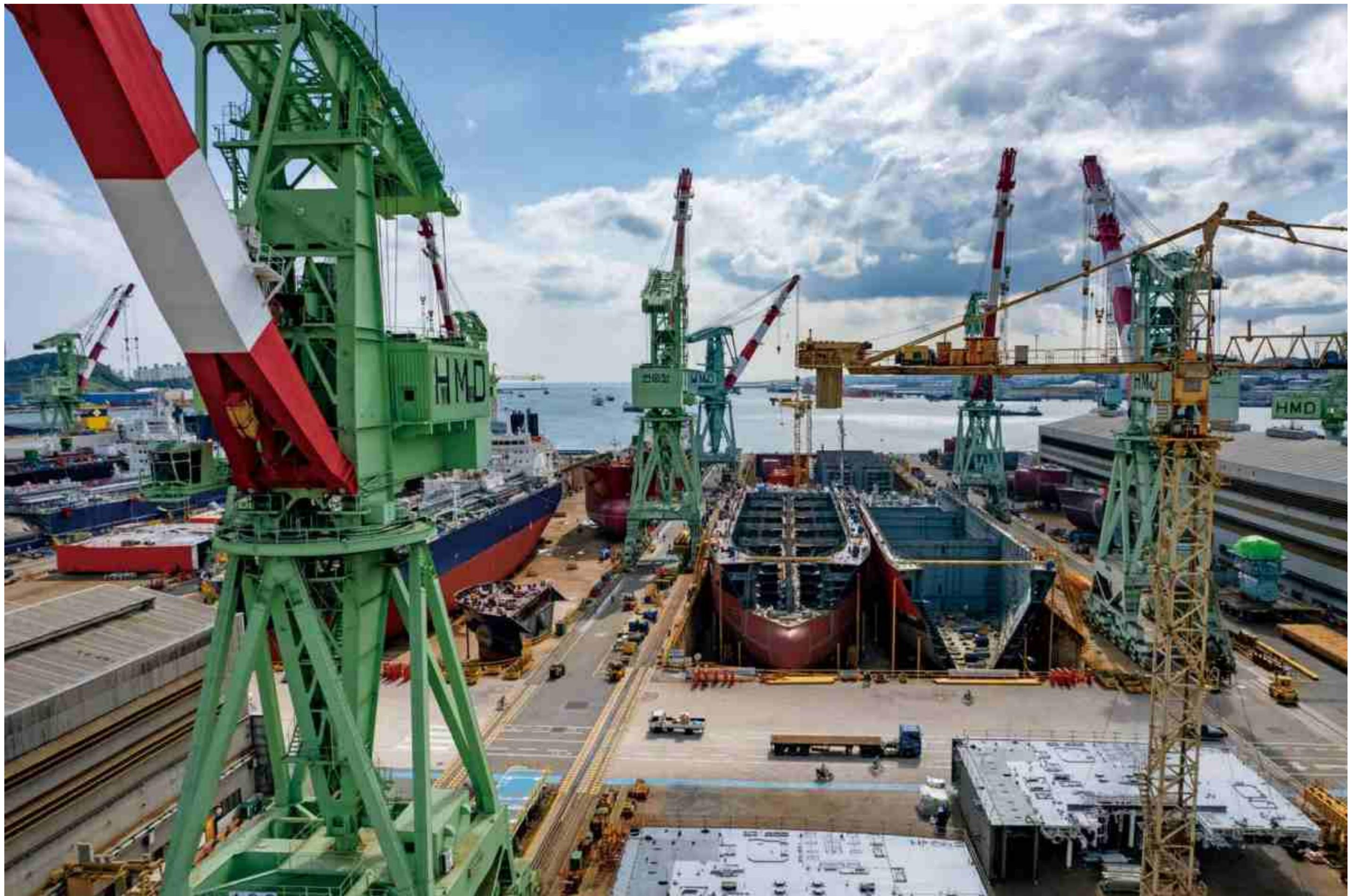
1975년 수리/개조 조선소로 설립된 현대미포조선은 1990년대 후반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 현재 중소형 선박건조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중심으로 컨테이너운반선, 가스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아스팔트운반선 등 연간 80여 척의 선박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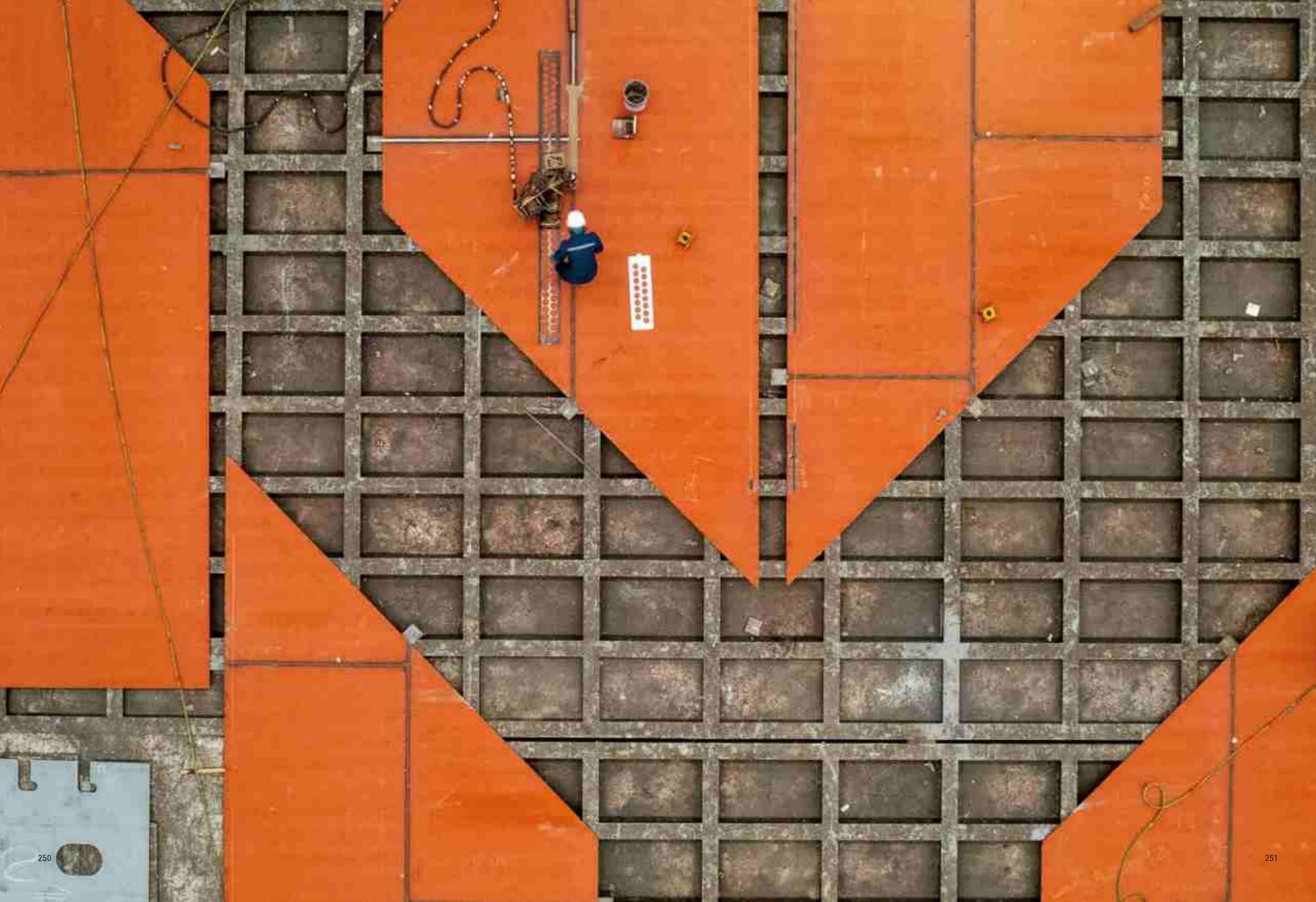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현대미포조선
HYUNDAI MIPO DOCKYARD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330만 m² 부지에서 세계 4위 규모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여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FPSO 등 다양한 해양 플랜트와 각종 산업용 크레인, 운하 게이트 설비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현대중공업그룹은 정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보다 윤택하고 깨끗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에너지 부문은 석유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정유, 석유화학, 석유저장터미널, 주유소 사업을 하며,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일렉트릭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린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ERGY

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현대에너지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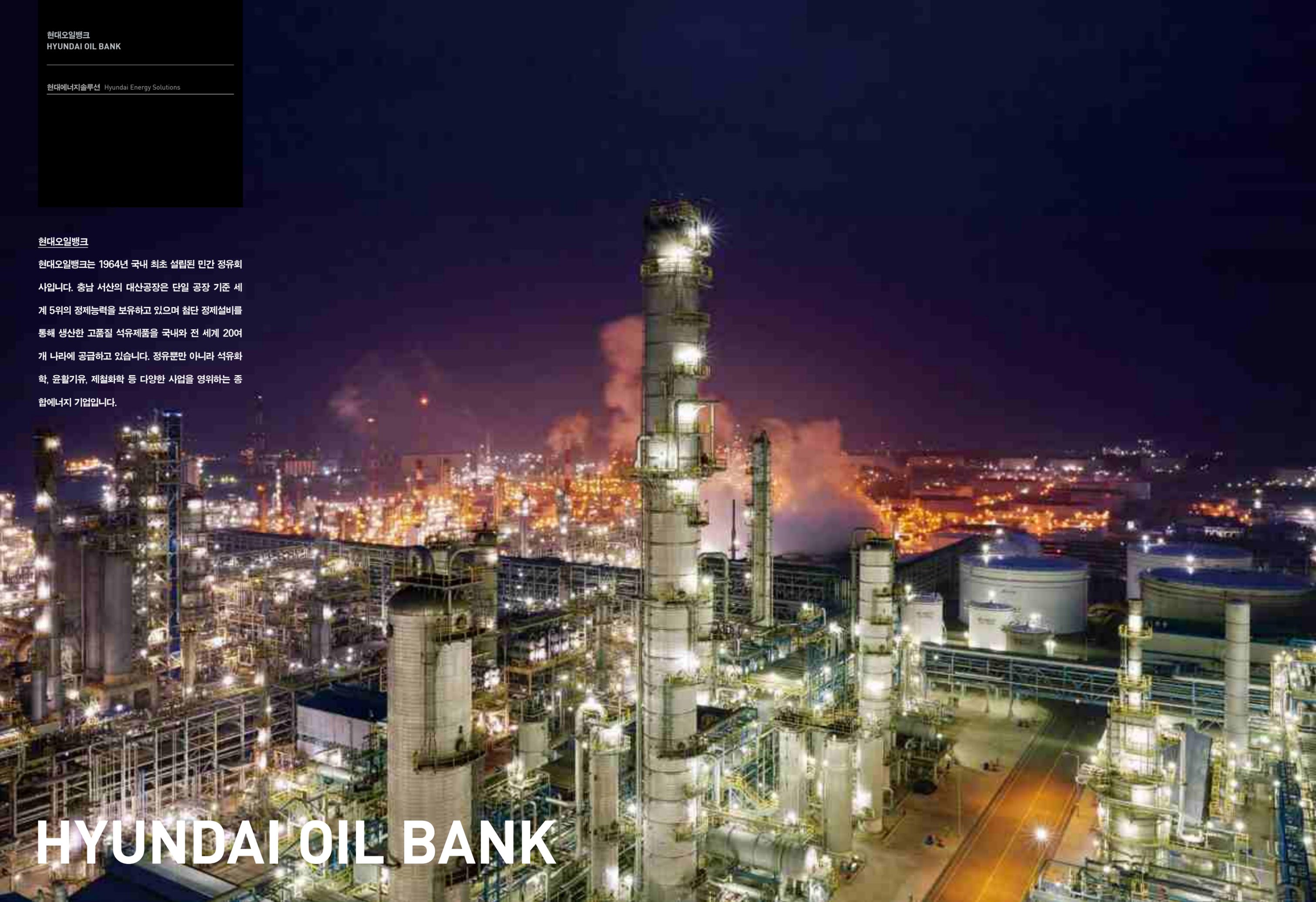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
HYUNDAI OIL BANK

현대에너지솔루션 Hyundai Energy Solutions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국내 최초 설립된 민간 정유회사입니다. 충남 서산의 대산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5위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정제설비를 통해 생산한 고품질 석유제품을 국내외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윤활기유, 제철화학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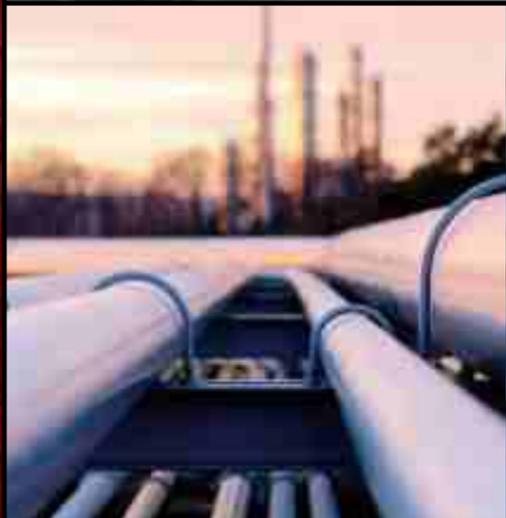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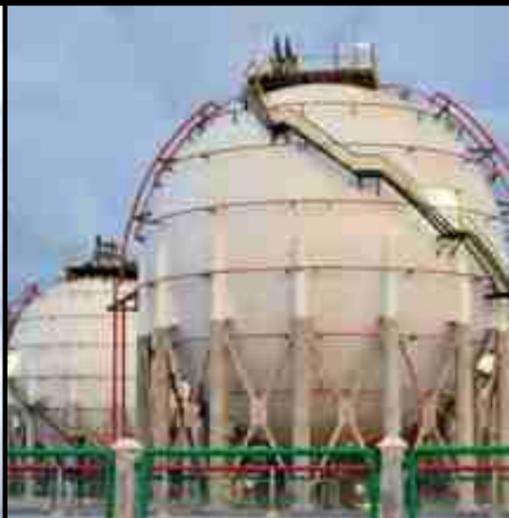
HYUNDAI OIL BANK











현대에너지솔루션
HYUNDAI ENERGY SOLUTIONS

현대오일뱅크 Hyundai Oil Bank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고효율·고품질의 제품경쟁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에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HYUNDAI ENERGY SOLUTIONS





현대중공업그룹은 산업 기계와 자동화 설비 등

다양한 산업 솔루션을 통하여 전 세계 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산업 솔루션 부문은 전력 기기, 건설장비 및
산업용 차량, 산업 자동화와 로봇, 산업용 핵심 설비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DUSTRIAL SOLUTION

산업 솔루션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일렉트릭앤시스템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건설기계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두산인프라코어 Hyundai Doosan Infracore

현대일렉트릭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현대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현대글로벌서비스 Hyundai Globa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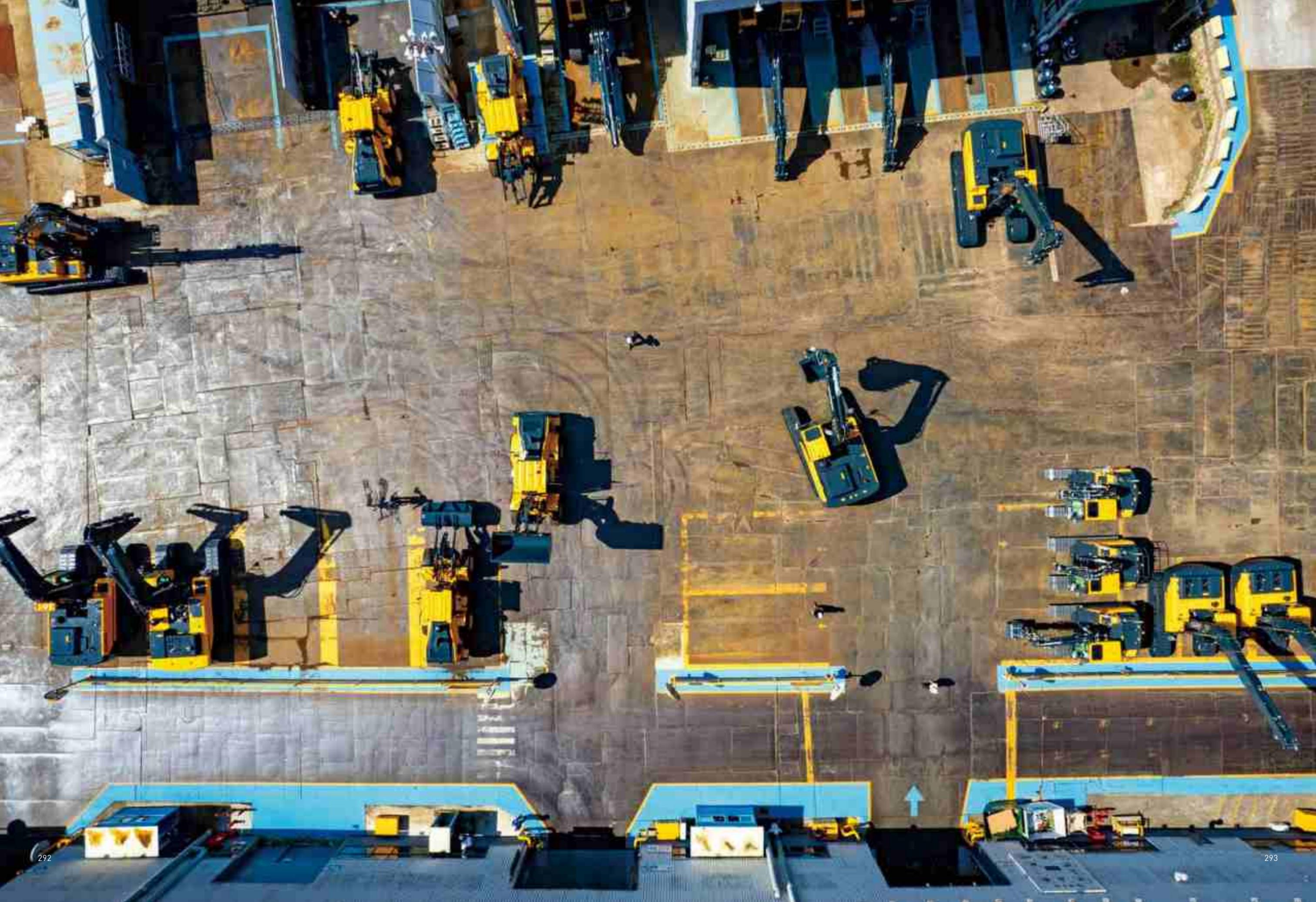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 휠로더, 백호로더, 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장비와 산업차량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종합건설기계 전문기업입니다. 140개국 540개 딜러망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현지법인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 혁신, 앞선 ICT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두산인프라코어
HYUNDAI DOOSAN INFRACORE

현대건설기계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일렉트릭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현대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현대글로벌서비스 Hyundai Global Service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와 로더로 대표되는 건설기계, 디젤 및 가스 엔진 등을 제조하며, 해당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를 지향하는 기계회사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혁신적 솔루션과 제품만이 미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력한 기업문화와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슬로건 'Powered by Innovation' 아래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HYUNDAI DOOSAN INFRACORE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현대건설기계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우산인프라코어 Hyundai Doosan Infracore

현대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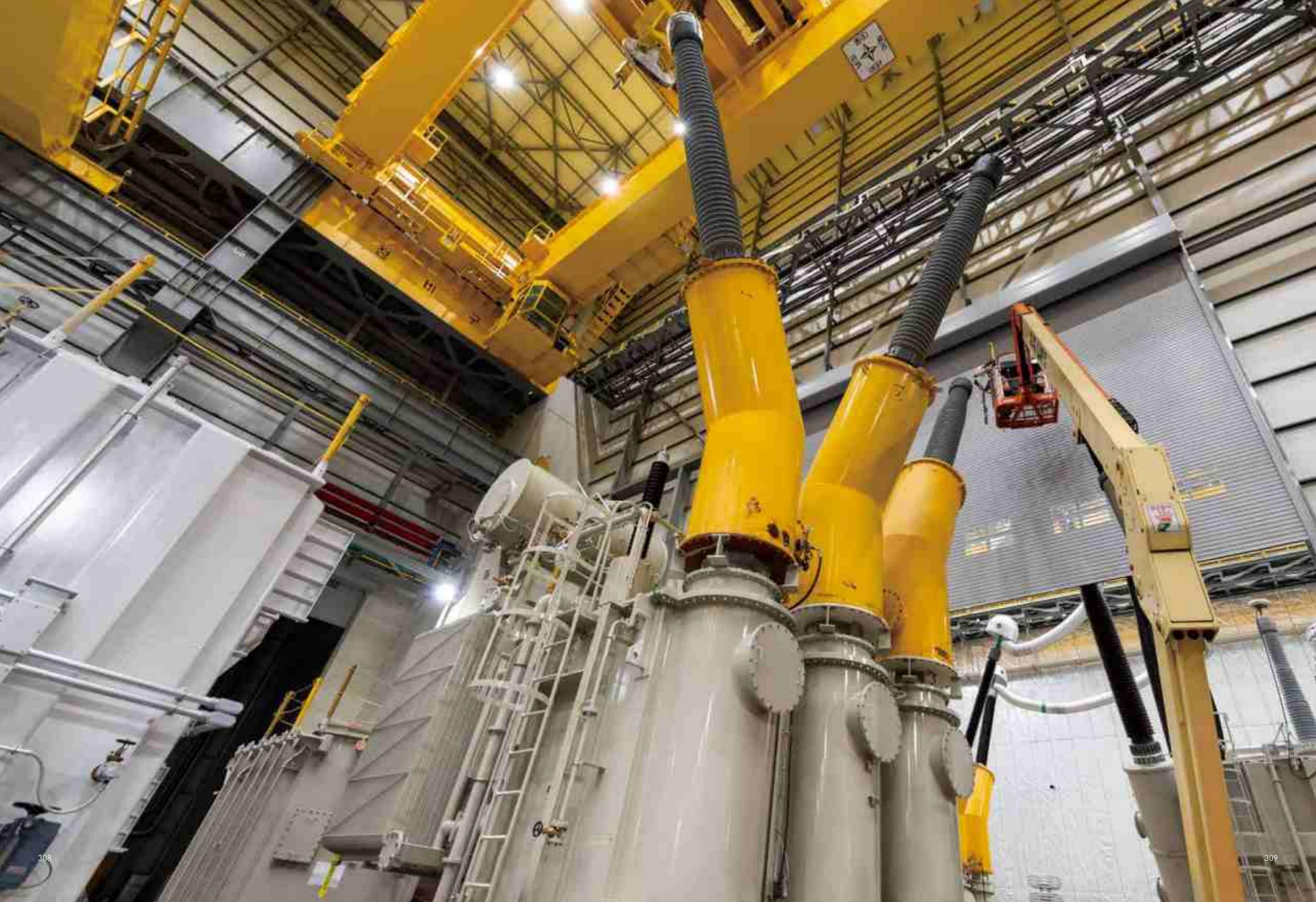
현대글로벌서비스 Hyundai Global Service

현대일렉트릭

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로 탄생한 후
2017년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일렉트릭은 발전소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발전·송전·배전에 필요한 일체의 전기전자기기를 공급하고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플랜트, 선박 등 각종 산업현장에 전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어하는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현대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현대건설기계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두산인프라코어 Hyundai Doosan Infra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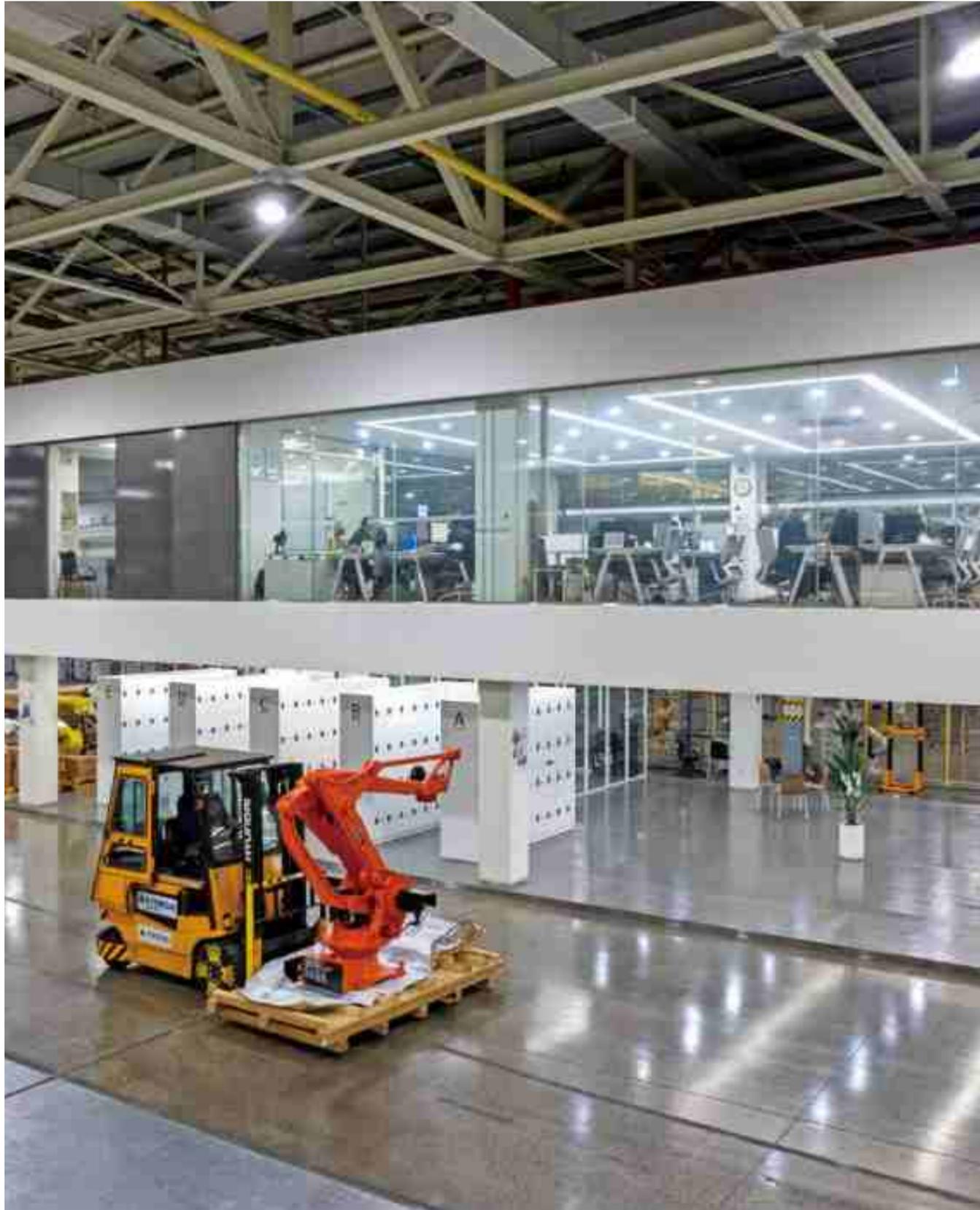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현대글로벌서비스 Hyundai Global Service

현대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의 독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 LCD 로봇 및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첨단 생산시설에서 산업용 로봇과 LCD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클린 로봇 등을 연간 8000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HYUNDAI ROBOTICS



Expanding Possibility



현대글로벌서비스
HYUNDAI GLOBAL SERVICE

현대건설기계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두산인프라코어 Hyundai Doosan Infra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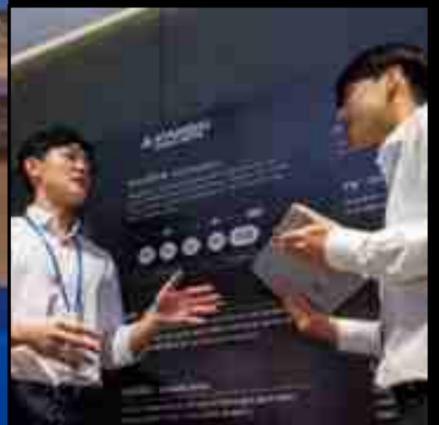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현대로보틱스 Hyundai Robotics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엔지니어링 기반 서비스 전문 회사로 선박의 인도 후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지, 보수, 개조와 발전 플랜트의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쌓아온 4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솔루션 개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솔루션 제공, 발전 플랜트 O&M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YUNDAI GLOBAL SERVICE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최고의 R&D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기술 중심의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회사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 부문은 그룹 성장·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육성함과 동시에,
중간지주사와 계열사 연구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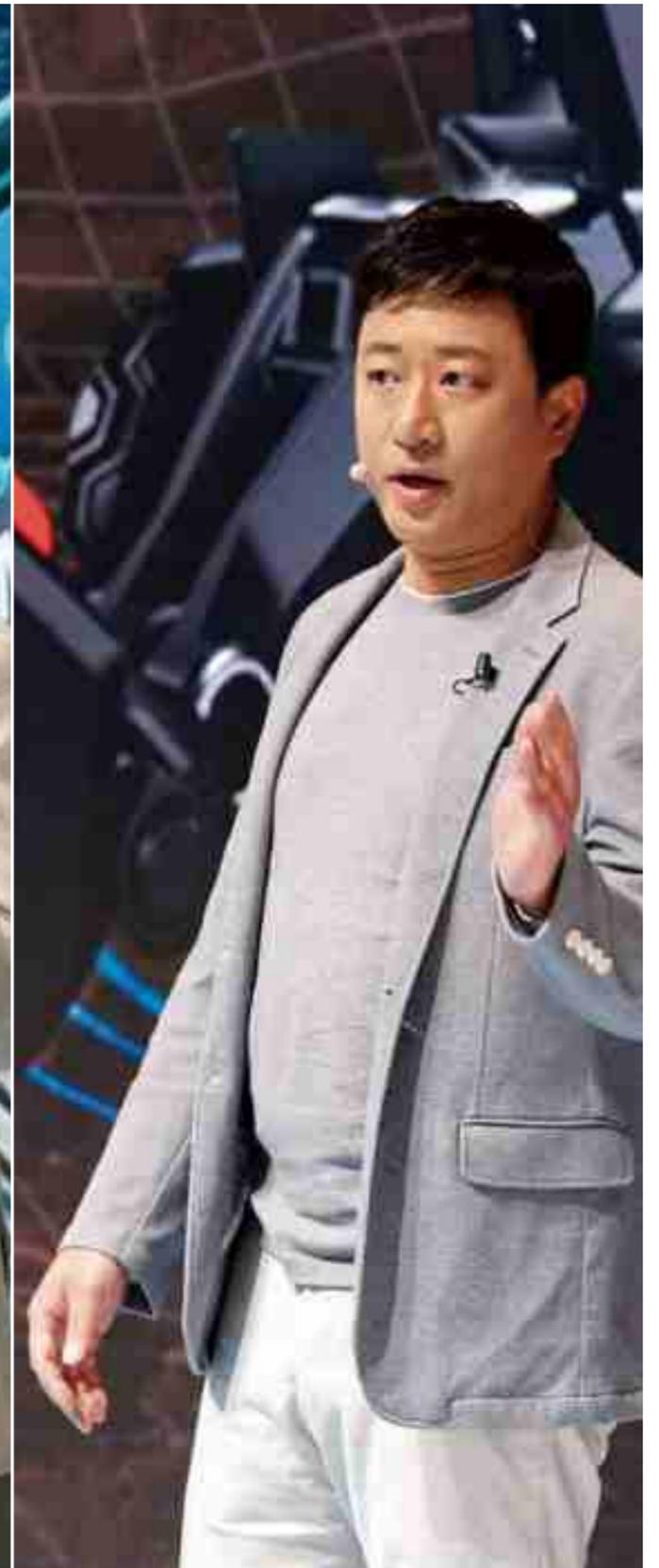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현대일렉트릭
신뢰성센터

현대건설기계
기술혁신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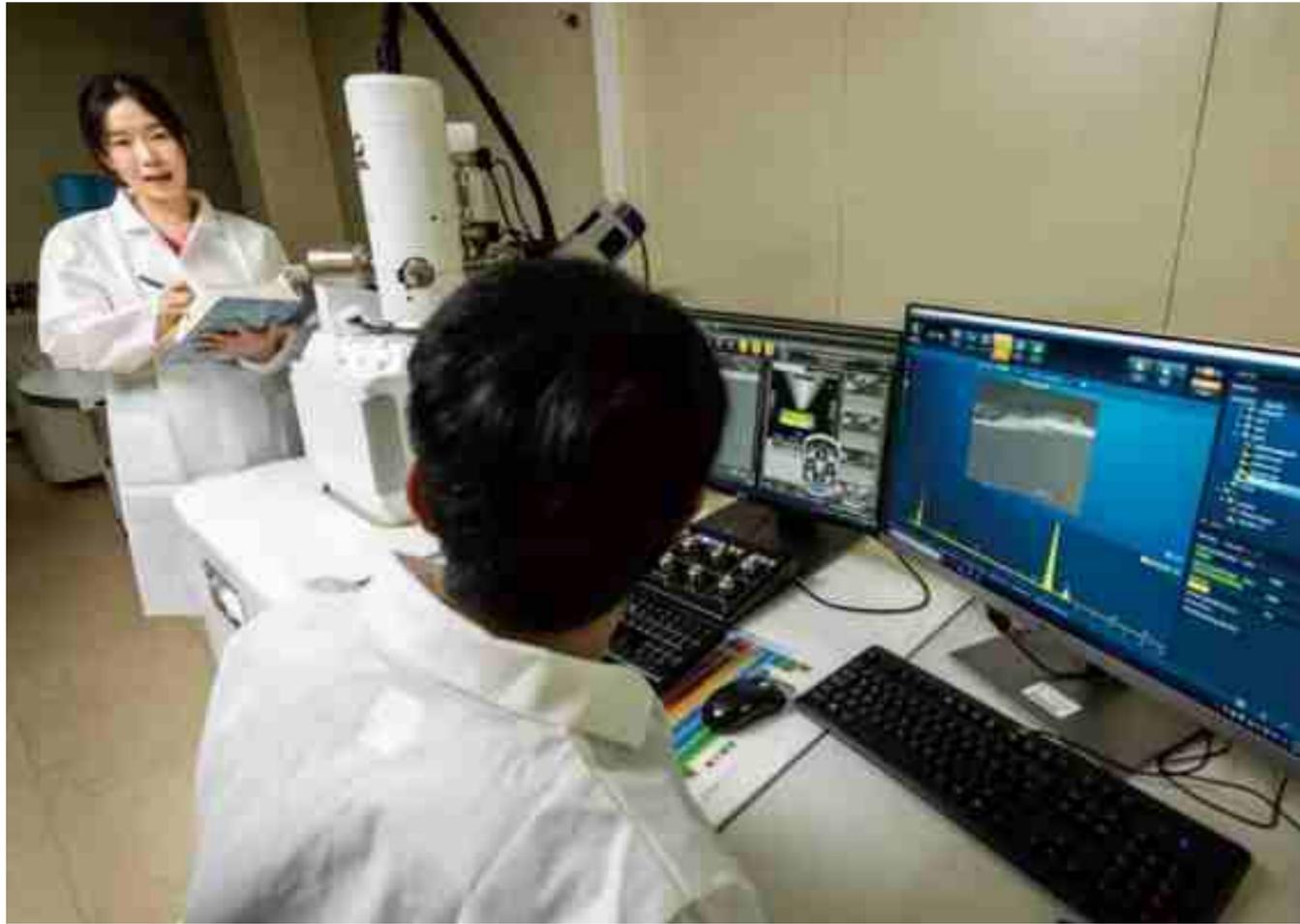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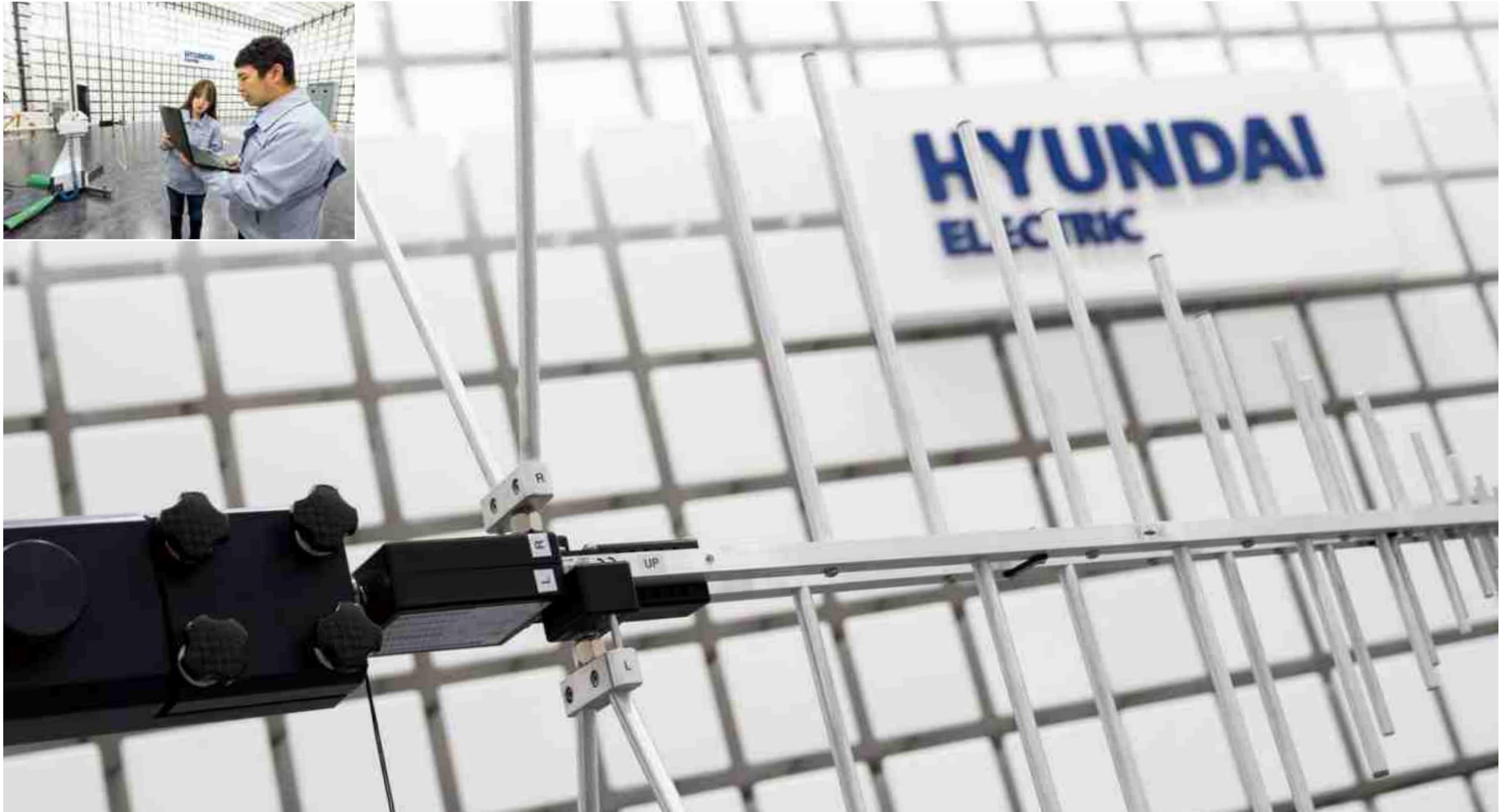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현대일렉트릭 신뢰성센터
현대건설기계 기술혁신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현대일렉트릭 신뢰성센터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현대건설기계 기술혁신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현대건설기계 기술혁신센터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현대일렉트릭 신뢰성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현대중공업그룹 사회공헌은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꿉니다.

SOCIAL CONTRIBUTION

사회공헌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학교법인 현대학원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스포츠포츠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학교법인 현대학원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스포츠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현대학원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스포츠





학교법인 현대학원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스포츠



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학교법인 현대학원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스포츠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학교법인 현대학원

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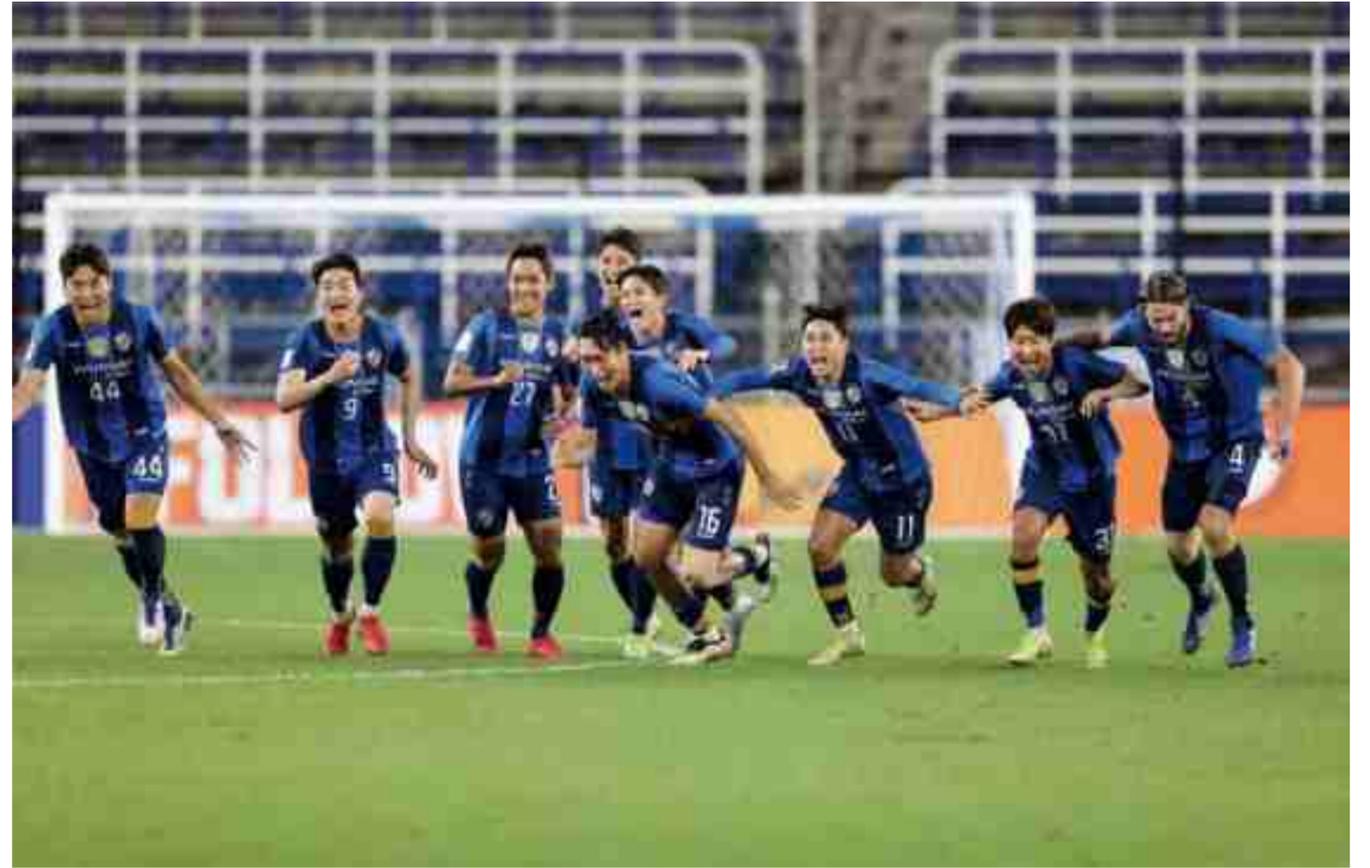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학교법인 현대학원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HD현대 | 권오갑 회장

편찬위원 한국조선해양 | 가삼현 부회장
현대중공업 | 한영석 부회장
현대오일뱅크 | 강달호 부회장
현대제뉴인 | 손동연 부회장
HD현대·한국조선해양 | 정기선 사장
현대제뉴인 | 조영철 사장
현대중공업 | 이상균 사장
현대미포조선 | 신현대 사장
현대오일뱅크 | 주영민 사장
현대일렉트릭 | 조 석 사장
현대글로벌서비스 | 이기동 사장
현대삼호중공업 | 김형관 부사장
현대건설기계 | 최철곤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 | 오승현 부사장
현대로보틱스 | 강철호 부사장
현대에너지솔루션 | 박종환 부사장

실무위원 현대중공업 | 노진율 사장
HD현대 | 금석호 부사장
한국조선해양 | 송지현 전무
현대중공업 | 조용수 전무
현대중공업 | 이영덕 상무

실무진 한국조선해양 | 김준호, 유동수, 하정수
현대중공업 | 이 진, 이민규, 정 진, 고병철, 전호성
현대미포조선 | 안 응
현대삼호중공업 | 임윤선
현대오일뱅크 | 설정훈, 방세형
현대일렉트릭 | 신영일
현대제뉴인 | 문성욱
현대로보틱스 | 강윤정
현대글로벌서비스 | 이상욱
현대에너지솔루션 | 김민석
HD현대 | 옥도현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획 제작 (주)사사연
02-569-4409
기획 총괄 이언배
원고 집필 박성욱, 안영은
기획 진행 송미경, 김효열, 정건호
아트디렉터 박세훈
디자인 박수진, 신미경, 유지연, 심재민
사진 촬영 신한호, 김도근
인쇄 제작 넥스프레스

현대중공업그룹 50년사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인쇄 2022년 6월 15일
발행 2022년 6월 30일
발행처 현대중공업그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http://www.hdhyundai.co.kr>

비매품